

월요광장



박 석 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전라도 출신이 아니면서도 전라도와 끈끈한 인연으로 맺어진 사람이 다산 정약용(1762~1836)이었다. 조선의 천재 3형제라고 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정약전·정약종·정약용의 어머니 해남 윤씨는 고창이 해남이었다. 다산은 바로 전라도의 외손으로 태어난 것이다.

해남 윤씨의 대표적인 인물은 당연히 고산 윤선도였다. 윤선도의 증손자인 공재 윤두서는 조선 시대 ‘3원3재’(三園三齋) 화가의 한 사람이자 뛰어난 학자로서 실학의 방향을 모색했던 선구적인 인물이었다. 다산의 어머니는 바로 윤두서의 손녀였으니 다산은 공재의 외증손자였다.

“공재 이후로 다산의 외가엔 숨어져 연 구하던 실학자들이 많았다”(위당 정인보)라고 말해지듯이 그런 외가의 피를 이어받은 다산이 조선 실학사상의 집대성

법조칼럼



이 정 훈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 변호사 일을 하다보면 크게 두가지 부류의 의뢰인을 만나게 된다.

첫번째, 상담하러 올 때 안 좋게 될 가능성부터 물어보는 의뢰인이다. 변호사를 선임한 뒤 무죄 주장을 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변호사를 선임해도 유죄가 나올 수 있는 건 아닌지, 유죄가 나올거면 국선변호인으로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닌지, 무죄 주장을 해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식을 주는 것은 아닌지 등을 묻는다.

변호사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말해줘야 하는 만큼 의뢰인이 부정적인 측면, 어

기 고



박 인 철
광주신세계 영업기획&개발TF 팀장

홍보맨은 그 회사의 전위병이며 힘이다. 그리고 그 일을 담당하는 기업 홍보맨들은 막중한 책무와 함께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야한다.

홍보 업무 경력 16년 차에 느낀 것은 홍보는 있는 일만 가지고 포장하는데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업 이미지와 지역 친밀도를 높여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퍼블리시티 활동을 펼치며 지역 깊숙이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지역 전문가는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란 말로 간단히 정리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무등산 정기로 태어난 금남군 정충신

자가 되었음은 뿌리의 한쪽에 전라도 흔이 이어지고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라도의 흔과 피를 이어받은 다산은 16세 때인 1777년 9월에 다산의 아버지 정재원이 전라도 화순 현감으로 발령이 나자 아버지를 따라 10대 후반의 꽃다운 세월을 화순에서 보낸다. 적벽강의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고 물염정의 뛰어난 경관에 감탄하고, 서석산(무등산)에 올라 ‘야호!’를 외치며 젊음의 기개를 마음껏 펴 보기도 했다.

다산은 17세이던 1778년 겨울에는 중형 정약전과 함께 화순 만연사 곁에 있는 그윽하고 경치 좋은 동림사(東林寺)에서 40일이 넘도록 경전(經傳) 연구로 독서삼매정에 빠지기도 하였다. 이때 젊은 두형제는 ‘서경’(書經)과 ‘맹자’(孟子)를 공부하면서 요순시대라는 이상 사회를 꿈꾸었다. 그리하여 눈 오는 밤에 잠 못 이루며 끝없는 토론을 계속했다는 기록을 보면 그들 형제는 역시 선각자였음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18세 되던 다음 해인 1779년 2월 초, 두 형제는 과거 시험을 위해 한양으로 가는 화와산을 떠난다. 화순으로 내려올 때는 공주-전주-담양을 거쳐 화순에 이르렀으나, 한양으로 가는 길에는 광주-장성-순창을 거쳐 서울로 향했으니, 이 때 바로

다산은 최초로 광주 땅을 밟았던 것이다.

당시 다산이 광주를 지나면서 남긴, ‘경양방축을 지나며’라는 한 편의 시가 있다. 광주의 태봉산을 깎아서 그 흙으로 메워 버려 지금은 흔적조차 없는 경양방축, 끝없이 넓고 컸던 그 방축으로 광주·광산 일대의 들판에서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었다는 다산의 시에서 이제는 영원히 사라져 버린 그 저수지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만 남아 있을 뿐이다.

얼마 동안 서울에서 지내던 다산은 그해 9월, 아내까지 데리고 화순의 아버지를 뵈러 다시 전라도를 찾는다. 성환-공주-장성-광주 방향으로 내려오면서 생애 두 번째로 광주를 찾게 된 이때 다산은 ‘두 번째로 광주를 지나며’(重過光州)라는 멋진 시 한 수를 짓는다.

“광주를 지날 때마다(每過光山府)/ 마음속엔 정금남 생각이로다(長懷鄭錦南)/ 신분이야 구종직처럼 미천해도 (地如從直劣)/ 재주는 이순신과 견주어도(才比舜臣堪)/ 옛날 사당엔 풍운의 기운 어렸고(古廟風雲氣)/ 유적지에서는 부로들이 전설 전하네(遺墟父老談)/ 웅장한 무등의 진산(眞山)에서(雄哉端瑞山)/ 정기 모아 기특한 사나이 태어났네(亭毒出奇男)”

광주를 지나면 생각나는 사람이 보잘

것없는 신분으로 광주에서 태어났지만 이순신 장군의 재주에 맞는 정충신(鄭忠信 : 1576~1636) 장군이랴니 이게 간단히 넘어갈 내용인가. 세종 때 낮은 신분이었지만 뛰어난 재주와 능력으로 무과에 급제하여 공조판서·좌참성에 오른 문장가·역학자·경학자이던, 구종직(丘從直)처럼 신분은 낮았어도 재능은 이순신에 맞먹던 정충신 장군.

호는 만운(晩雲)이요 고려시대의 명장 정지(鄭地) 장군의 후손인 그는 임진왜란 때에는 권을 장군과 함께 행주산성에서 큰 공을 세웠다. 또 평양의 행재소로 가서 백사 이항복의 제자가 되어 무과에 급제한 뒤 인조 때 이괄의 난에는 탁월한 지략으로 진무공신 1등에 오르기도 했다. 금남군(鎭南君)의 군봉을 받아 전하에 이름을 날렸고 죽은 뒤에는 충무공(忠武公)이라는 시호가 내려져 문무를 겸비한 시대의 위인으로 추앙받는 인물이 되었다.

광주군 대표적인 충신은 누가 뭐라 해도 충장공 김덕령과 금남군 정충신이다. 그래서 광주의 중심 도로는 충장로와 금남로로 이름이 지어졌다. 이런 역사적 위인을 잊고 지내는 우리가 부끄럽다. 다산 조차 추앙했던 금남군, 왜 이순신만 충무공으로 숭배하고 충무공 정충신은 현향할 줄 모른다만 말인가.

희망과 가능성,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려운 부분을 부각해 물어보면 1~2%의 가능성이 있는 나쁜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의뢰인과 변호사 모두 사건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기 쉽고 사건을 조금씩 포기하게 된다.

두 번째, 무죄 가능성이나 승소 가능성보다도 자신의 억울함을 재판부에 전달해줄 수 있는지, 사건에 대해 궁금한 것이나 어려운 점이 없는지 변호인에게 설명해주고 자료를 갖다 주고 싶어하는 의뢰인이 있다. 이런 사람은 선임비용부터 물어보기보다는 자신의 억울한 입장을 충분히 변호사에게 이해시키려 하는 의뢰인이다. 이와 관련한 실제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다. 먼저 음주 삼진아웃을 당해 상담 전화를 했던 A씨의 경우다. 변호사는 A씨에게 실행 가능성이 낮지만 존재하고, 운전 차량을 처분한다면 집행 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 대응한다면 벌금형이라는 결과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A씨는 고민 끝에 변호사를 선임했고, 결국 변론에 최선을 다한 결과 집행 유예

보다 낮은 벌금형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게 됐다.

A씨와 같은 음주 삼진아웃을 당한 B씨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실행 가능성이 낮고 차량 처분을 하던 집행 유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들었다. B씨는 변호사에게 조언해줘 고맙다는 말을 한 뒤 가능성이 낮은 벌금형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국선 변호인을 청구해 집행 유예의 결과를 받았다.

이 사건에서 A씨와 B씨의 차이는 무엇일까?

필자가 생각하기에 돈도 돈이지만, 자신의 사건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했느냐의 여부다. 특히 변호사와의 상담시 긍정적인 결과를 받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했느냐의 차이다.

또 다른 사례를 들자면 명예훼손 사건에 휘말린 C씨는 국선 변호사에게 선정된 내게 연락해 상대방에게 명예 훼손 대상 사실을 전파한 사실은 있지만 비밀을 전제로 했으니 무죄 주장을 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비밀을 전제로 하더라도 명예 훼손이 인정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상 확

고하니 유죄를 인정하고 양형 주장을 해야 한다고 조언해 줬다.

그러나 C씨는 직접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와 상담을 했고, C씨를 직접 만나 상담한 결과 소송 기록에는 잘 언급되지 않았던 사건의 경위(학원 동업 관계 파탄 및 피해자가 손해 배상 소송에 이용할 목적을 가지고 지인을 통해 명예 훼손 발언을 유도한 사실 등)을 알게 됐다.

나는 전화 상담시 말했던 내용이 잘못 되었음을 깨닫고 법정에서 명예 훼손 사실을 들은 당사자와 피해자가 이용할 관계임을 근거로 공언성이 없다고 주장한 끝에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또한 사건을 접하는 의뢰인의 절실함과 노력, 긍정적인 태도가 변호인을 설득시켰고 재판부까지 설득시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만큼 부정적인 면도 상존한다. 모두가 2018년 새해부터는 겁에 물이 반쯤 있을 때 이를 보고 낙담하기 보다는 물이 반이아 남아 있다고 말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긍정적인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업 홍보맨은 지역 전문가가 돼야 한다

지역이 뭘 원하고 지역의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체크하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지역 실물 경제는 어떤지, 지역의 상권은 어떤지, 이 모든 지역 사정에 통달한 사람 업무적 네트워킹을 구축하며, 지역 사회 동향과 비즈니스에 관한 보고서를 수시로 작성함으로써 전략 수립이나 지역 밀착 경영을 돕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지역 전문가라 일컬을 수 있다.

이제 홍보맨들은 지역을 가장 많이 알고 가슴으로 지역을 이해하며 지역을 품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지역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홍보맨의 진정성은 곧 기업의 진정성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진정성은 언론과 어떤 문제가 발생해 얽힐 때 모든 실타래를 풀 수 있는 홍보맨들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기도 하다.

홍보맨들이 최고의 지역 전문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헌신적인 자세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고 스케줄 관리를 통해 부지런해야 한다.

왜냐하면, 각분야 분야의 기자들의 정보를 잘 취합하며 뉴스 기사에서 보지 못

한 비하인드 정보도 꿰뚫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영진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입처 기자는 물론이고 시·도청, 경찰서 등 관공서, 문화 예술 담당 등 각 분야 출입 기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보의 폭을 넓혀야 한다. 기자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과 진보 교류를 통해 적극적인 소통 네트워킹과 채널을 가져가야 한다.

여기서 홍보맨들의 힘과 전문성이 생긴다. 그 힘은 회사의 파워가 된다. 홍보맨들의 다양한 네트워킹 인자폭 바로 그것이 기업, 사회, 지역을 연결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한 지역전문가가 있는 기업은 지역과 소통이 된다. 홍보맨들의 역할이 사회를 더 따뜻하게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속한 기업에 대한 자부심과 지역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된다. 16년간 홍보 마케팅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다. 홍보의 경험이 지역의 이해를 더 많이 쌓이게 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펼쳐지는 마케팅은 지역과 소통에 방점을 두

는 내용들이 많았다.

사회적 기업 대축제, 1인 기업 수제공방 상품 전시 판매전, 나주 천연염색 상품전, 창평 새벽달기, 곡성 메론 직거래, 우수 중소기업 박람회 등을 통한 지역 사회와 상생의 마케팅은 지역에 대한 이해가 없었으면 무관심 속에 펼쳐지기 힘든 내용들이었다.

그리고 지역의 문화 예술 관계자들과 교류를 통해 주말마다 아르고 앙상블, 아비지합창단의 정기 공연, 폐화점 속의 문화 유원지와 같은 지역 문화 창출을 위한 기획들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문화 기업의 이미지를 발신했다. 이 모든 마케팅 활동들은 지역사회와 소통의 또 다른 축이었다.

말로만 하는 소통의 시대는 지났다. 지역 깊숙이 파고들며 뛰어드는 실천력 있는 홍보, 지역과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획홍보, 그게 지역 전문가 홍보맨이 견지해 나가야 할 바가 아닐까 나 스스로 되짚어 본다.

지역을 이해하며 지역을 보듬는 진정한 지역 전문가의 반열에 도달하기 위한 나의 도전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社 說

당국의 안전불감증이 빛은 완도 경운기 사고

옛그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한 마을 노인 다섯 명이 탄 경운기가 바다로 떨어져 두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다. 해경은 급경사 도로에서 경운기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완도해경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완도군 약산면 사동항 인근 제방도로에서 윤 모 씨가 몰던 경운기가 바다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경운기 화물칸에 탄 할머니 두 명이 숨졌다. 운전자 윤 씨는 바닷가에서 감태 작업을 마친 뒤, 주민 네 명을 경운기에 태우고 3㎞ 고 직후, 인근 주민들이 구조 작업에 나서 그나마 인명 피해를 줄였다.

이번 사고에 대한 수사가 아직 종결되지는 않았지만 기계 고장이 아니라면 사고 원인은 운전 미숙이나 부주의로 결론날 확률이 높다. 하지만 문제의 제방도로에 위험 요소가 항상 도사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개선

올림픽 첫 남북 단일팀 우리 선수 피해 없도록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규모와 방식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주재로 열린 남북 담판에서 확정됐다. 북한은 역대 최대 규모인 22명의 선수를 보내기로 했고, 이 중 절반이 넘는 12명이 올림픽 역사상 처음 꾸려지는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에 합류하기로 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그제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남북 올림픽 참가 회의’ 직후 북한 선수단 규모를 선수 22명 임원 24명으로 확정 발표했다.

개회식 때 남북은 아리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기로 했다. 남북 단일팀을 꾸리는 여자 아이스하키 엔트리는 우리 선수 23명을 합쳐 35명으로 확대됐다. 북한 선수는 경기별로 3명까지 출전기로 했다. 나머지 4개 종목은 남북 선수들이 각각의 국기를 달고 출전한다.

그동안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는 많은 우려가 제기됐다. 이미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한 우리 대표팀에 북한 선

수를 합류하면 4년 이상 피땀을 흘려온 우리 선수들은 그만큼 출전 기회를 빼앗기거나 출전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남북 단일팀 반대’ 청원이 줄을 잇는 등 남남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졌다. 단일팀 구성 과정에도 선수들이 철저히 소외되면서 상처를 남겼다.

다행히 우리 선수 23명을 모두 엔트리에 포함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우리 선수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북한 선수의 기량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데다 선수단 규모가 커지면 서로 또 다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어렵사리 성사된 단일팀인 만큼 남북 화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려면 선수들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감독에게는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는 가운데 선수 선발의 전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1940년 폴리처상 수상자인 존 스타인 벡의 ‘분노의 포도’는 20세기 미국 소설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작품이다. 한 농부 일가를 배경으로 1930년대 대공황의 절망적 현실을 그린 사회소설이다.

소설 속에서 소작인인 조드와 그 가족들은 은행과 지주에게 땅을 빼앗기고 고향을 떠나 ‘축복의 땅’이라 여겨졌던 캘리포니아로 떠난다. 그러나 그곳의 사정도 녹록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각지에서 들어온 노동자들로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

고 고용주들의 횡포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곳에서 조드는 우발적인 살인으로 쫓기는 신세가 된다. 가족을 이끌고 농가의 빈 창고로 숨어들지만 예기치 않은 홍수로 일대는 쓸대밭으로 변한다. 설상가상으로 기아에 허덕이던 딸 샤론은 사산(死産)을 하게 이른다. 그러나 샤론은 시시각각 감돌의 범람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도 굶어 죽어가는 부랑인의 목을 끌어안아 주저 없이 자신의 젖을 물린다.

소설에서 잘 익은 포도는 탐스러운 열매라기보다 ‘주렁주렁 매달린 분노’를 상징한다. “내가 사육한 소만으로도 1년에 2000명이 먹을 수 있다. 그런데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국 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년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